

소외계층의 속앓이... 마스크 보급도 '소외'

신종코로나 공포 속 품귀·가격 폭등에 구입 어려워 한숨만 예산 책정 안되고 재난안전기금은 의료기관 등 우선 제공 광주·전남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3월이나 배부 가능

#. 광주시 남구의 기초생활수급자인 한 모(57·남구 양림동)씨는 최근 마트에서 마스크를 사려다 가격을 보고 멈춰섰다. 그는 몇 번을 들었다 놔다 하다가 끝내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고 돌아섰다. 한씨는 "저렴한 가격의 마스크는 대부분 품절됐다. 그나마 남아있는 마스크는 가격이 부당돼 결국 사지 못했다"며 "동주 민선터에서 지급받은 것은 지난해 겨울 미세먼지용으로 받은 게 전부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정부의 대응 과정에서 저소득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

층에 대한 마스크·손 소독제 배부 등을 조치했음에도, 정작 광주·전남 현장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지적이 적지 않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가격마저 폭등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사·도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 정책을 추진하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을 후순위로 미루는 무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4920만원의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지난 30일부터 마스크(9000개)와 손 세정제(770개), 손 소독제(200개), 체온계(400개) 등을 구입해

자치구 보건소, 선별 진료소 등에 내려보냈다. 전남도도 1억 9800만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긴급 대응사업'으로 22개 시·군에 내려보냈지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각 의료기관별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환경소독티슈 등을 전달하는 등 다중시설과 선별진료소 등에 대한 우선 공급에 주력하면서 정작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시와 전남도, 일선 자치단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손 소독제 배부 및 공중시설 방역 소독 등에 활용토록 한 행정안전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정작 저소득층 지원은 후순위로 밀쳐놓은 것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

위계층, 생활시설 거주자 등 저소득층과 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 무료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쪽에서는 저소득층의 건강 보호와 상대적 박탈감을 배려한다며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펼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아예 우선 순위에서 미뤄놓는 어설픈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는 시기인데다, 집단시설의 경우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도 높은 만큼 이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는 게 복지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지역 사회복지시설인 A 육아원측은 "개당 1000원 이상 하는 마스크를 아이들에게 매일 제공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원아가 엄마 손잡고 마스크 쓴 아이가 부러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jusbh@kwangju.co.kr

했다. 그나마 올해 저소득층에게 제공될 미세먼지 마스크도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배부 시기가 예상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광주시는 최근 국·시비 31억원 중 17억 원을 우선 투입해 5개 구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을 펼치도록 했으며, 전남도도 39억 7600만원 중 17억 4900만원을 22개 시·군에 내려보냈지만 17만3000명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제때 공급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1월에 보조금을 교부받아 2월부터 입찰 등을 진행, 마스크를 구매한 뒤 3월 초야 주민들에게 배부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자치구 관계자는 "3월보다 다소 늦어질 수도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관리를 하는 만큼 조속히 배부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영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수산단 하청업체 직원 홀로 설비 청소하다 숨겨

여수산단에서 또 하청업체 직원이 작업 중 숨겨진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낮 12시 10분께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 P화학업체에서 설비장치 내부의 청소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 A(49)씨가 폐촉매제 더미에 깔렸다. A씨는 동료들에 의해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원료를 생산하는 화학업체 내 하청업체 소속 직원으로 이날 혼자 폐쇄된 설비장치에 들어가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경찰은 A씨가 '반응기'로 불리우는 공장 설비 내부 촉매 교체 작업에 앞서 폐촉매제를 떼내는 등 청소를 하다 촉매제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현장 직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전남 기온 '뚝' 내일 1cm 내외 눈 예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5일 광주·전남지역에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5일 광주·전남 지역은 대륙고기압이 확장하고 함께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이날 아침 최저기온이 광주 영하 4도, 곡성 영하 8도 등 대부분의 지역이 영하권에 들어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5일 새벽(0시부터 3시)에는 광주와 영광, 함평, 장성 등 전남 13개 지역에는 1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5도 이상 오르는 등 날씨가 풀려 포근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영 기자 jusbh@kwangju.co.kr

중국 교류도시 마스크 요청에 곡성군 '진땀' 지역 생산업체 24시간 공장 가동 '쉴 틈 없네'

'마스크 대란' 광주·전남 표징 유통업체 주문 전화도 폭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 대란'이 빚어지면서 곡성군은 최근 우호교류도시인 중국 저장성 저우산시 푸투구의 마스크 지원 요청에 애를 먹었다. 중국 저우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라 긴급 요청한 방역 물품은 방역 마스크(N95), 방호복, 보안경(GA500) 등으로 방호복과 보안경 구입이 어려운 경우 방역 마스크라도 우선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곡성군은 그러나 유통업체에 문의한 결과,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중국측이 요청한 N95나 KF 94 마스크의 경우 재고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N95 마스크는 공기 중 미세 입자의 95% 이상을 걸러주는 보건용 마스크다. KF 94도 평균 0.4μm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차단한다. 곡성군은 부랴부랴 평균 0.6μm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할 수 있는 KF 80 마스크 1000장을 구입해 지원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명절이 끝나자 마자 유통업체 3-4곳에 문의했지만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업체는 단 한 곳 밖에 없어 자칫 지

원조차 못할 뻔 했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요가 폭증하면서 광주지역 내 마스크 생산·유통업체도 일손이 모자랄 정도다. 광주시 북구 마스크 제조업체 ㈜태봉은 임직원 150여명이 24시간 공장을 가동하며 평소(KF 94등급 기준 2-3만장)보다 2배 가량 많은 하루 5만장을 생산하면서 숨 돌릴 틈도 없다. 이 업체는 원래 여성위생용품 생산하다가 최근 마스크 주문이 급증하면서 마스크 생산에 돌입하고 있다. 마스크 주문 전화만 하루 평균 100여건에 달해 최근 주·야간 2개 팀으로 나뉘어 24시간 풀 가동에 들어갔고 생산 직원도 10명에서 30명으로 늘렸다. 공장 관계자는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24시간 가동하면서 마스크 생산 부서 뿐만 아니라 원료 가공 부서 등 전 임직원들이 총동원됐다"고 말했다. 마스크 유통업체도 비슷하다. 소비자를 구매 전화가 폭주하면서 물량 확보에 진땀을 빼고 있다. 광주시 서구 의료용품 유통업체인 다온 기획에는 하루 평균 걸려오는 마스크 주문 전화만 20통이 넘는다. 업체 관계자는 "주문이 들어오더라도 현재 의료용 마스크인 N95와 KF94는 제때 납품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3일 광주시 북구 일곡동의 마스크 제조업체인 (주)태봉의 직원들이 KF90 마스크를 포장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

신종코로나 여파 토익 시험 연기 신청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영어 토익(TOEIC) 시험을 주관·시행하는 한국토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시험 연기 신청을 받아주기로 했다. 한국토익위원회는 3일 홈페이지에 올린 공고문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이 우려되는 수험자는 9일 토익 시험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5일 낮 12시부터 홈페이지 토익 연기 신청 홈페이지에서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12월 20일까지 정기시험 일정 안에서 어느 날짜나 선택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종코로나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대상자와 그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시험을 연기하거나 응시료를 전액 환불해줄 수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또 9일 토익 시험장에서는 모

든 수험자에게 시험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단 신분 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현재 접수 중인 2월 29일, 3월 15일, 3월 29일 토익 정기시험 신청자는 연기 신청 없이 바로 시험을 취소할 수도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를 예방하고 안전한 수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기침 시비 끝 취객끼리 폭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잦아들지 않는 기침을 하는 취객들이 다투다 나란히 경찰서행. ○·3일 광주북부경찰청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 2일 밤 11시 50분께 광주시 북구 문흥동 한 술집에서 수심여차례 연거푸 기침을 하는 B(55)씨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냐"며 시비하다 서로 목살을 잡는 등 폭행을 했다는 것. ○·경찰은 "십여 차례 기침을 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아니냐'고 한 데 불만을 품고 술집을 나가면서 항의성으로 욕설을 하다 시비가 붙었다"고 설명.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전남 목포시 상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6.5㎡(413.37평) 건물 : 684.43㎡(207.04평) 지상5층 주차장별도 **매매가 50억** 백년대로본 보증금2억7천 월수입2천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증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증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토지**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2691㎡(813.99평) **매매가 122억** 분할가능 8차선대로변접 병원, 사옥 건축 적합. 현 건축물 있음
- 토지** 광주 북구 삼각동 (1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5233㎡(1582.98평) **매매가 58억5천7백** 대로변 위치최상, 조정가능
- 주요소** 광주 광산구 장덕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69㎡(595.62평) **매매가 50억**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56%) 16억4천만원**
- 근린상가** 광주 서구 치평동 1233-2, 전용면적 : 137.16㎡(41.5평) 대지권 : 42.23㎡(12.8평) 현 고기전문점 식당 공실상태 **감정가 11억, 최저가 (56%) 6억1천6백만원**
- 근린주택** 전남 장성 진원면 산정리 토지 : 224㎡(67.8평) 건물 : 264.27㎡(79.9평) 1층 제조업소, 2층 단독주택사무소 **감정가 4억6천2백만원, 최저가 (45%) 2억7백만원**
- 근린주택** 광주 동구 계림동 토지 : 195㎡(59평) 건물 : 516.91㎡(156.4평) 지하1층 지상3층, 재개발 투자적합 **감정가 6억4백만원, 최저가 (70%) 4억2천3백만원**
- 근린주택**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85㎡(86.2평) 건물 : 871.4㎡(263.6평) 지하1층 지상4층 **감정가 8억1천8백만원, 최저가 (70%) 5억7천3백만원**
- 주 택** 광주 북구 풍향동 39-7번지 토지 : 496㎡(150평) 건물 : 54.04㎡(16.3평) **감정가 2억1천4백만원**
- 주 택** 광주 남구 서동 97-4번지 토지 : 193㎡(58.4평) 건물 : 140.39㎡(42.5평) **감정가 2억 8백만원**
- 아 파트**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